

KISTEP 조사자료 2023년도 지역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국(일본) 동향

**(부록3) 우리나라 지역 R&D체계 발전을 위한
주요국(일본) 정책 동향 조사**

-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를 중심으로 -

추후 교체 예정



목 차

CONTENTS

2023년도 지역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국(일본) 동향

I 서론 | 1

II 일본 R&D 정책 흐름과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 4

1. 일본 R&D 정책의 흐름 4
2. 일본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7

III 우리나라 지역거점 대학 관련 정책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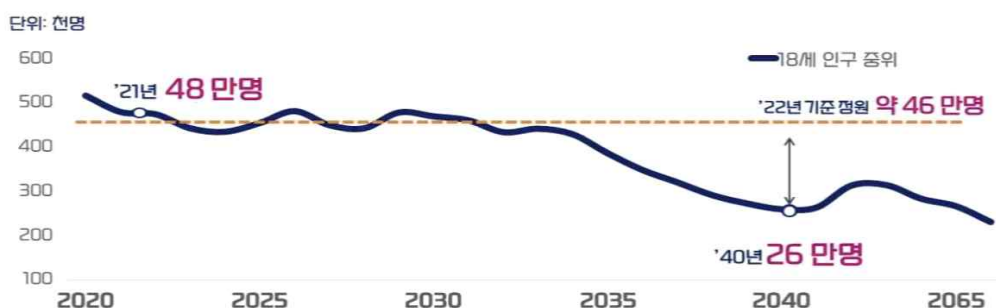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지역거점 대학 관련 정책의 흐름 17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8

IV 결론 및 시사점 | 22

2023년도 지역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국(일본) 동향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 및 기업과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득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산을 나타내는 수도권-비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의 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약 5배까지 벌어졌으며¹⁾, 고용의 경우도 2021년 기준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의 경우에도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는 지방인구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89개 시·군·구 중 약 95.5% 해당하는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림 1-1] 입학자원 추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²⁾

1) 2010년 -1.2% → 2021년 5.6%p

윤석열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분권형 지역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3년 9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시대 5대전략³⁾ 및 9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표 1-1〉 지방시대 9대 정책⁴⁾

	내용
지방시대 9대 정책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가칭)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도시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현상을 앞서 겪었던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과 함께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지역 거점의 특색 있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핵심 도시와 지역 역시 이와 관련하여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역 소재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지역혁신거점정책의 혁신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역거점에 해당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많은 공동협력체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

2)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2023.9)

3) ‘과감한 지방분권’, ‘창조적 혁신성장’, ‘맞춤형 생활복지’, ‘주도적 특화발전’, ‘담대한 교육개혁’

4)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2023.9)

는 일본의 지역혁신거점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가 도출되기까지의 관련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3년도 지역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국(일본) 동향

II 일본 R&D 정책 흐름과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2.1. 일본 R&D 정책의 흐름⁵⁾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은 과학·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증액, 정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주도의 핵심기술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연구력 저하, 박사 학위 취득자(고도인재) 확보 부진, 산업구조 전환 부진 및 산업경쟁력 저하에 직면하여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아베 전 총리는 ‘Society 5.0 사회 구현’을 제시하는 등 스가 전 총리까지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시다 현 총리도 계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신 자본주의” 추진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과학기술입국 실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경제안전 보장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 일본 ‘통합적 지식’(종합지)의 활용 이미지⁶⁾

5) “일본 내각부 R&D 제도 개편 분석”(KIAT [애자일], 2022.12) 및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5.) 내용 재구성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성장동력으로 하기위해 연구개발 방향과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에서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은 ‘21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기시다 총리의 정책 기조와 연결되어 있는 기존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종합지’(이하 ‘통합적 지식’) 활용, 증거기반 국가연구개발 전략 수립·개선·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적 지식’의 활용을 내각부 및 관련부처 사업에 적용하는 등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변화의 핵심으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정책으로 변화 및 발전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통합적 지식’ 활용 추진방안으로 ‘장(場)의 구축’, ‘인재육성’, ‘활용’, ‘과제설정’의 네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적 지식’ 추진 방안 중 ‘장(場)의 구축’과 관련된 시책으로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표 2-1〉 ‘통합적 지식’ 추진 방안⁶⁾

분야	내용	1차 대상시책	관련 시책
장(場)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적용으로 “통합적 지식” 활용 성과 파악 • 소속 영역, 기존 인맥 외에 다양한 인재, 지(知)의 결집구조 구축 • “통합적 지식” 활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결집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샷, SIP 프로그램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특색있는 대학종합진흥 패키지 •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대학 •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지원 패키지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지식”활용시 개인에 속한 경험을 “지(知)”로 구조화하고 그 과정에서 인재 육성 촉진 • “통합적 지식” 활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지식” 캐러번 실시 • “통합적 지식”포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인재육성 워킹그룹

6) “일본 내각부 R&D 제도 개편 분석”(KIAT [애자일], 2022.12)

7) “일본 내각부 R&D 제도 개편 분석”(KIAT [애자일],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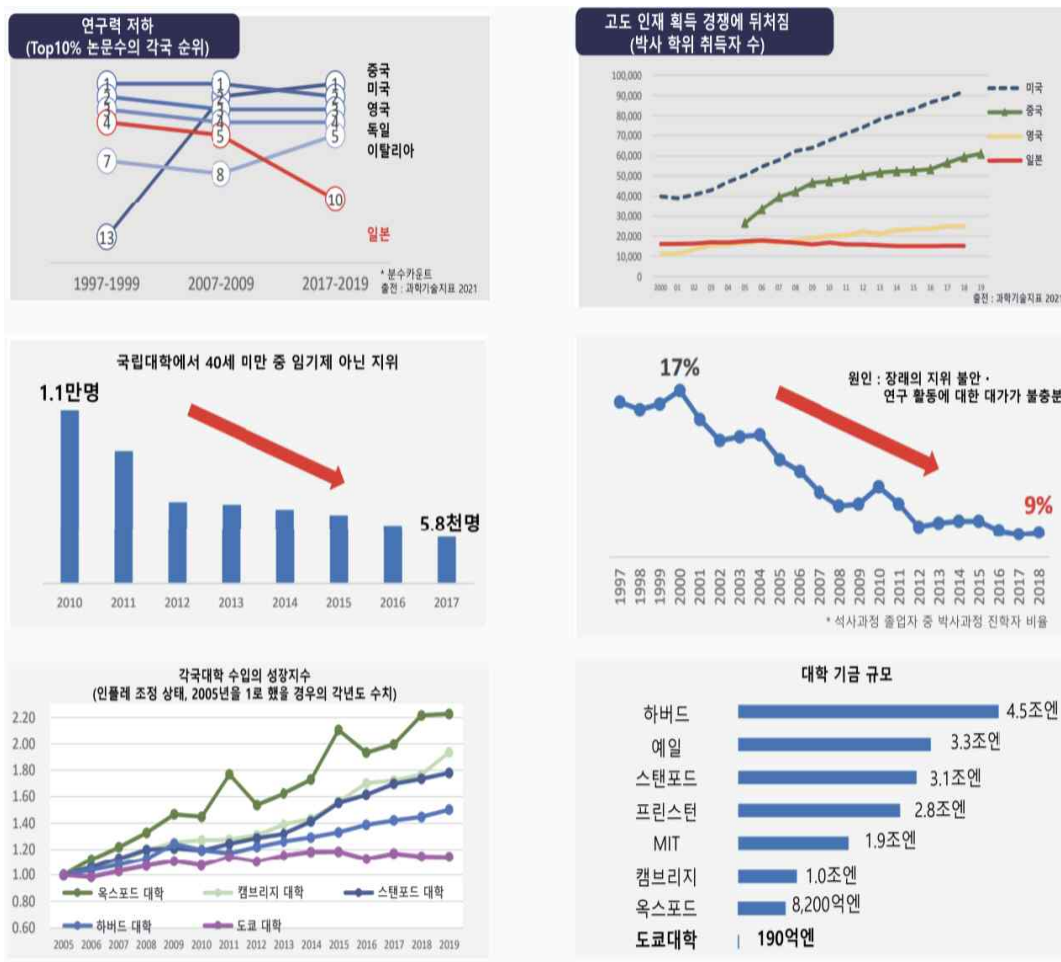
분야	내용	1차 대상시책	관련 시책
인재활용· 캐리어 패스(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등에서 Wellbeing, 공동활동 등, “통합적 지식” 활용 구조 평가 • 인재활동, 등용으로 연결되는 평가방법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력 강화 및 젊은 연구자지원 패키지 • 지재권, 무형자산활용, 활용전략개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가치창조 가이드스
과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분야의 지식과 식견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여러 과제에 확실한 대응 도모 • “통합적 지식” 활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결집 및 활용 	-	-

‘21년 8월에 개최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기시다 총리는 지역 핵심대학 구축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에 대해 연내 정리를 주문했으며, ‘21년 12월에 내각부는 과학기술정책 담당대신 등 정무 3역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전문가 의원과의 회의에서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후 ‘22년 2월에 채택을 하고, 내각부는 ‘23년 2월에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 개정판을 공표했다. ‘23년 6월에 일본 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지식 기반 및 인재육성 강화, 혁신 생태계 구축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담은 “통합혁신전략 2023”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역핵심대학 등의 종합진흥패키지 개정을 바탕으로 확대된 사업 개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발표한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의 맥을 잇고 있다.

2.2. 일본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2.2.1. 추진 배경 및 목적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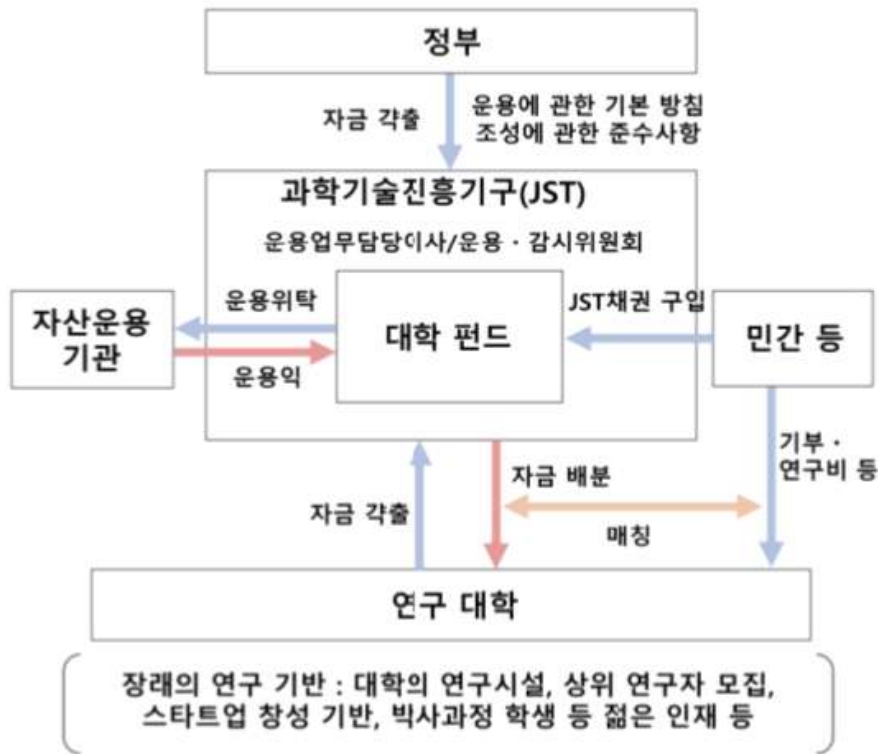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연구력(좋은 논문 수)의 상대적 저하, 박사과정 학생의 감소 및 젊은 연구자의 지위 불안정(임기제 등), 그리고 세계 상위 대학과의 예산 규모 격차 등으로 인한 자국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림 2-2] 일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⁹⁾

- 8)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위한 노력: 일본 10조엔 대학펀드 창설”(교육&재정 웹진, 2023.4) 및 지역핵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중합과학기술·innovation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9.) 내용 재구성
- 9)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위한 노력: 일본 10조엔 대학펀드 창설”(교육&재정 웹진, 2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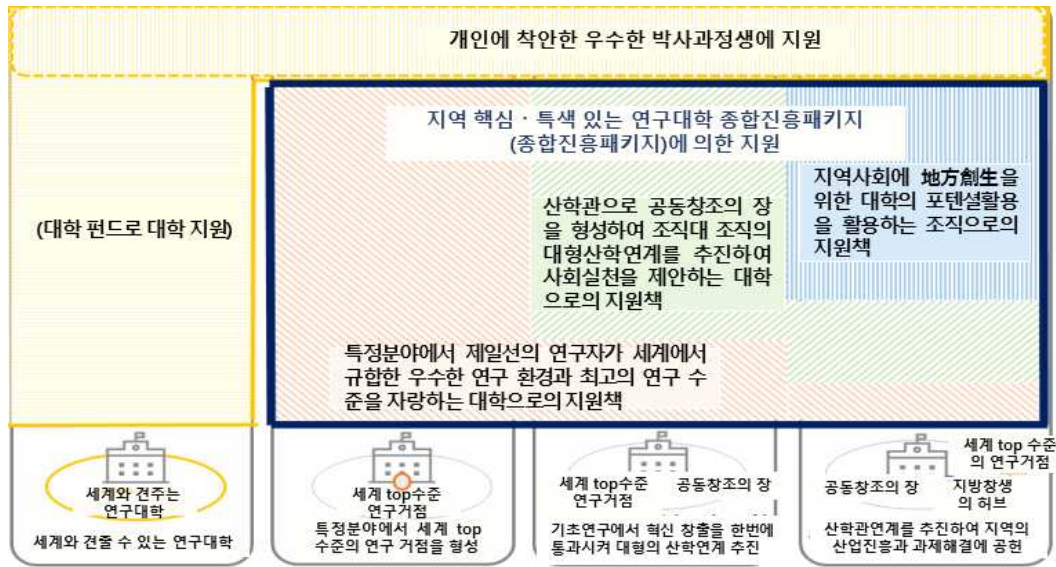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속에서 장래 대학의 연구 기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강화와 세계 상위권 연구대학에 걸맞는 제도 개혁 실행 등을 목적으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창설하였다. 참가 대학은 세계 상위권 연구대학에 걸맞은 제도 개혁, 대학 개혁, 자금 각출 등을 약속하게 하였고, 펀드는 50년 제한으로 장래에 혜택을 받은 대학들이 각자의 자금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림 2-3] 일본 대학 펀드 운영체제¹⁰⁾

“대학펀드”가 지원하는 연구대학의 유형은 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연구 대학, ② 특정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 연구거점 대학, ③ 기초연구의 혁신 창출과 대형 산학연계 추진 대학, ④ 산학관 연계 추진과 지역 산업 진흥 및 과제 해결 대학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② ~ ④ 유형은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에서 지원하고 있다.

10)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위한 노력: 일본 10조엔 대학펀드 창설”(교육&재정 웹진, 2023.4)



[그림 2-4] 일본 대학 펀드 지원체계¹¹⁾

1) 일본 정부의 대학에 대한 기대와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에서의 대학상¹²⁾

일본 정부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식 집약형 사회 및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사회변화들에 대해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천인 「지」와 「인재」배출을 통해 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대학의 존재를 사회 인프라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새로운 자본주의」실현을 위한 성장전략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역 디지털 인재의 필요성 등 수요 측면의 관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기대 증가(사회인의 리스킬링¹³⁾)이나

11) 지역핵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innovation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9.)

12)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pp.8-9.)

13) reskilling,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업무와 직업에 종사하는 것

박사 인재에 대한 요구 등)에 부응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최적화를 대학 스스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배치되어있는 다양한 고등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각자의 기능에 기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각각의 개성이나 특징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든 세대가 배울 수 있는 「知(지식)의 기반」으로서 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들에게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 차세대 사회구조 전환 촉진 및 관련 비전 제안 등 보다 능동적인 모습을 주문하였다.

〈표 2-2〉 고등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¹⁴⁾

고등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제안, 성과를 환원(「지식의 공통 기반」) • 다양하고 탁월한 「지식」이 혁신 창출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연구력 강화」) • 산업계의 고용 방식과 일하는 방식 개혁과 고등교육이 제공하는 배움의 매칭(「산업계와의 협력·연계」) •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에 공헌(「지역에 공헌」)

이처럼 종합진흥패키지에서 나타난 대학상은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학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스스로의 미션과 특색에 맞는 포트폴리오 수립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힘을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지식」창출과 「인재」 배출을 지속하는 대학상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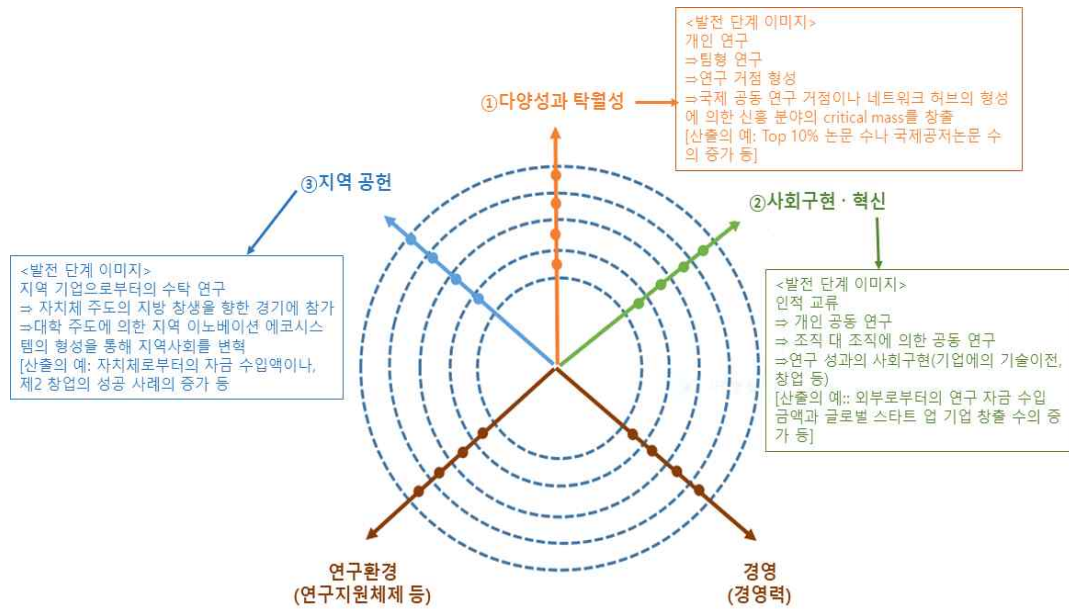
2)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의 목적¹⁵⁾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는 지역의 중심대학이나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대학이 “특색있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변혁을 이끌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실력과 의욕을 가진 대학 개별의 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지역 간의 연계 및 위축 등을 위해서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지원한다.

14)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답신) 2018년 11월 중앙교육심의회”[개요]에서 발췌

15) 전계서, p.11.

종합진흥패키지는 대학의 연구 활동이 대학의 힘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각 대학이 스스로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나침반’이라는 기본적인 대학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복적으로 전개되는 각 부와성의 사업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정리해 대학이 스스로 미션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선택하고 발전 단계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림 2-5] 종합진흥 패키지에 나타난 대학상의 나침반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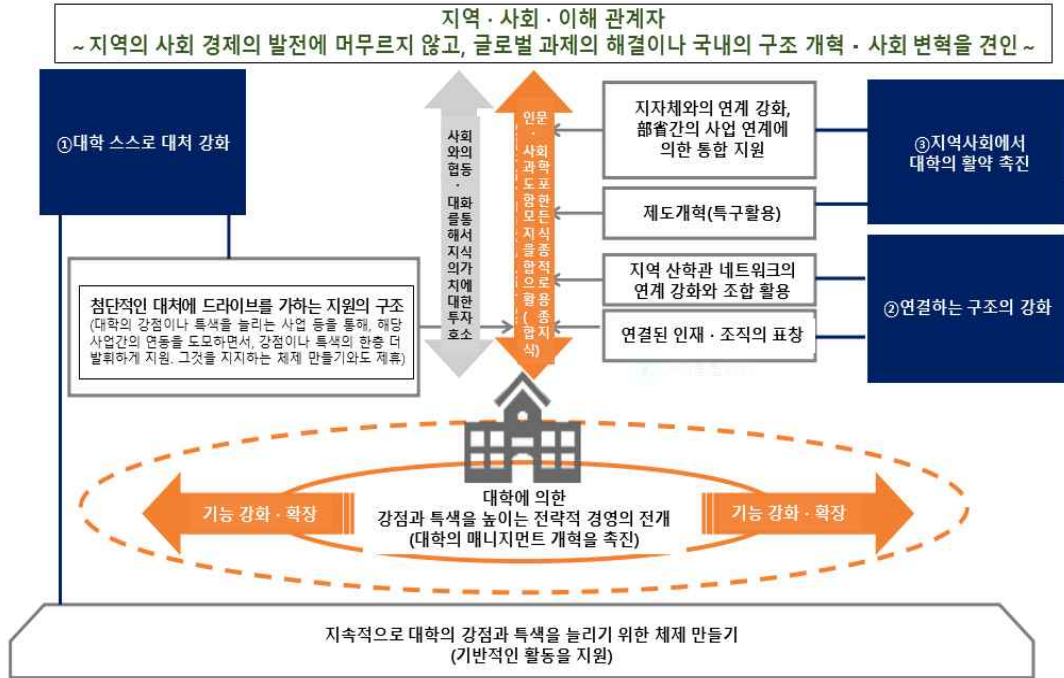
2.2.2. 주요 내용¹⁷⁾

종합진흥패키지는 대학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는 대학이 자신의 강점과 특색을 키우는 전략적 경영을 전개함으로써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대학이 변함)이고, 둘째는 대학이 확장된 잠재력을 사회와의 협동으로 최대한

16) 출처: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11.)

17)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종합과학기술·innovation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p.16-26.)

발휘하고 주체적으로 사회 공헌에 임함으로써 사회를 변혁하는 것(사회가 변함)이며, 셋째는 지역 내의 산학관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인재와 조직을 강화하는 것(지역 내 조직 구조의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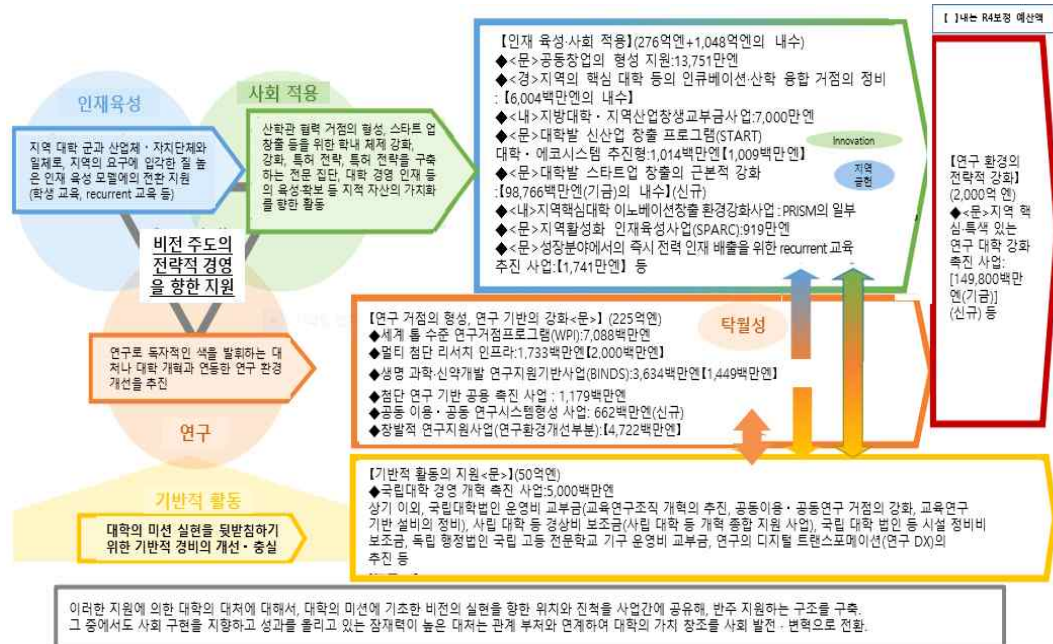
[그림 2-6] 종합진흥 패키지에 의한 지원 전체의 형태(모델 사례)¹⁸⁾

① 대학 스스로 대처 강화

종합진흥패키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대학이 지식 축적이나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독자적인 연구 특색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강점이나 특색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중층적인 지원책을 항목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과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대학은 미션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경비와 각종 지원책을 연동시켜 대학 경영과 연동된 연구력 향상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대학 전체적인 연구관리체제의 구축(URA 등의 연구관리 인재와 기술 직원 등 고도의 전문직 인재를 포함)과 연구의 독자성·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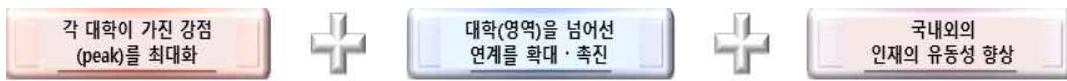
18) 지역 핵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16.)

향상을 통해 대학의 전략적 경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창조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 2-7] 대학 스스로의 대처 강화¹⁹⁾

다음으로 일본 전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진흥패키지와 대학 펀드를 연동시켜 개별 대학이 가지는 강점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복수 조직(영역)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인재의 유동성이 높은 역학이 있는 연구 대학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8]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²⁰⁾

끝으로 대학은 대학을 향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과 특색을 키우는 전략적 경영을 전개함으로써 대학의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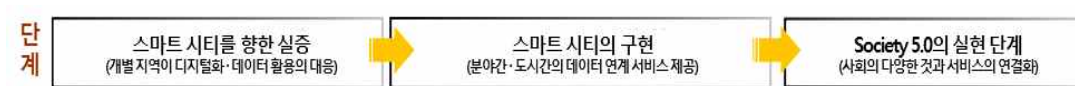
19)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19.)

20)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22.)

강화 (대학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은 확장된 잠재력을 사회와의 협동으로 최대한 대학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주체적으로 사회공헌에 임함으로써 사회를 변혁(사회가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② 연결구조의 강화

일본 정부는 연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 내 산학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합진흥패키지에서 대학은 지역 내 형성되어 있는 산학관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지역 내, 지역 간 조직을 연결하는 주요 인재 간의 연결을 넓혀 지역의 요구를 발견하고 과제 공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2-9] 스마트시티의 구현 과정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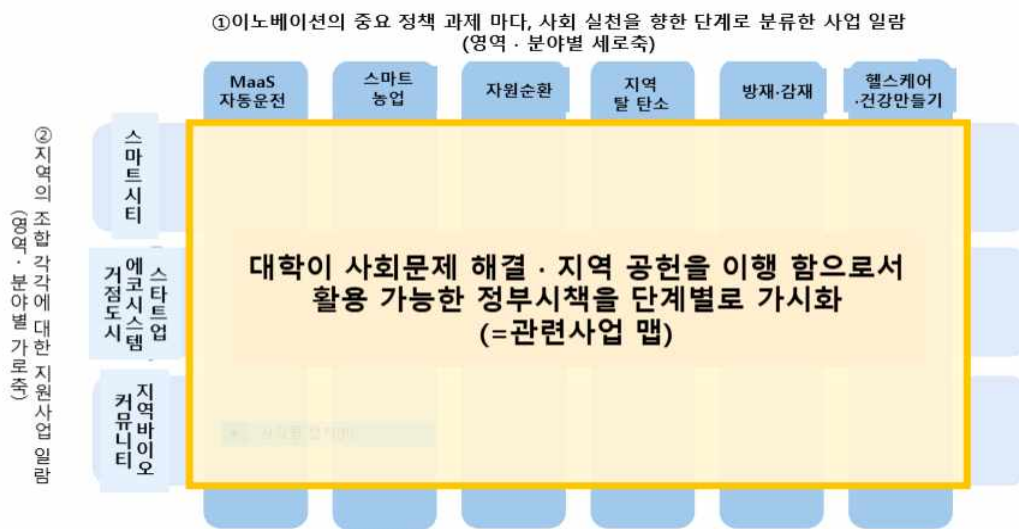
지역의 산학관 네트워크 연계 강화에 의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에서의 산학관 네트워크의 정리, 가시화에 의해 지역에 있어서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과 동시에 각 네트워크의 주요 인재 간 연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생김으로서 각 사업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 사업 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네트워크 간 연계나 주요 인재 간 협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 지역의 요구나 과제의 공유가 한층 더 진행되어 지역과 대학이 일체가 된 지역사회 변혁을 목표로 한 새로운 사업의 전개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간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단계에서 사회구현 단계로의 발전과, 사회구현단계에서 나타난 새로운 연구과제(연구개발 단계)로의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넷째, 지역공헌을 통한 지역 내 대학 간의 연계 촉진이나 지역의 틀을 넘은 대학의 활약 촉진과 같은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

21)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64.)

결국 종합진흥패키지는 지역의 핵심 대학이나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대학이 특색있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인재 배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원동력으로서 사회변혁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지역 핵심 대학 등이 슈퍼컴퓨터「후가쿠(富岳)」 등 전국적으로 오픈된 연구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의 '지식22)과 연결하여 각 지역에서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일본 전국의 대학을 지역 성장 엔진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분산형 성장모델로서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실현하게 된다.

③ 지역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활약 촉진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작동하기 위해서 각 부·성이 연계하여 대학의 지식 활용을 통해 혁신에 의한 신산업·고용 창출이나, 지역 과제 해결 등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2-10] 지역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활약 촉진을 향한 관련 사업의 정리²³⁾

22) 전계서, p.14.

'지식'은 비연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원천임. 연구자의 내재적인 동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현상의 발견이나 해명, 신개념이나 가치관의 제시를 행하는 것으로 경계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음. 기초연구·학술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있고 그 축적의 결과로서 때로는 독창적인 성과가 창출되어 세계를 바꾸는 신기술과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나게 됨.

23)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자료, p.37.)

이를 위해, 대학이 사회과제 해결이나 지역공헌의 실행에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각 부와 성이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대학의 관련 시책 활용 제고를 위해 대학 현장 시점에서 관련 사업을 맵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대학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사회과제 해결 및 지역 과제에 대한 공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도 지역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국(일본) 동향

Ⅲ 우리나라 지역거점 대학 관련 정책

3.1. 우리나라 지역거점 대학 관련 정책의 흐름²⁴⁾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관련 정책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해 추진해 왔다. 이 중 노태우정권에서는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제3차 국토종합계획(‘92~’01년)”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민정부로 들어선 김영삼정부에서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를 도입해 대학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이후 김대중정부는 ‘00년 12월, 권역별 산·학·연 체제 구축,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기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97~’01년)’에 이어 ‘99년부터 1단계 “BK21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우수대학 육성사업’, ‘02년부터 ‘지방대학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면서 ‘03년 이후 대학 정원감축과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노무현정부(2003~2007년)가 등장한 시기로서 대학정원정책의 경우 ‘03년 11월 발표한 ‘대학경쟁력강화 방안’에서 대학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과감한 대학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지원 등을 포함한 6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듬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방안’에서 대학 특성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하여 기능별로 대학 재구조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대학 자율권 확대의 지속적 추진전략의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신뢰할 수 있는 대학평가체계 강조라는 기초의 박근혜 정부가 ‘13년도에 출범하면서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의

24)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대학교육연구소, 2020.7.) 및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교양연구, 2017.2)의 내용 재구성

교육·산업·경제·고용·문화·복지 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지역거점대학”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시기 추진된 대표적인 지방대학 지원정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14년부터 5개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16년 전체 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신설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편입시켰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23년 2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23년 4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한층 더 구체적인 사업인 “글로벌대학30”을 발표했다.

3.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²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²⁶⁾)”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지역주도 대학(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글로벌대학 육성’, ‘규제완화 및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23년 5개 내외 시범지역 운영, ’24년 기반조성을 거쳐 ‘25년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25)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 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2)의 내용 재구성

26)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활성화 사업’ 등 5개 주요 사업들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규모 조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지자체 주도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²⁷⁾

‘지역주도 대학(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해 지자체의 라이즈(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한다.

27)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2)



[그림 3-2]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²⁸⁾

‘글로벌대학²⁹⁾ 육성’의 경우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투자³⁰⁾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대학은 ‘글로벌대학육성위원회’(가칭)를 통해 심의 및 지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담대한 비전과 혁신의지, 대학의 실천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및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의 경우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의 경우 라이즈(RISE)가 차질 없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지원 추진기반이 충실하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의

28)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2)

29)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에 세계적인 대학

30) 교육부 5년간 1,000억 원(교당) 지원 추진,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 집중투자 등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 및 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고등교육협의회’(가칭)을 신설하여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 및 조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과 같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는 2025년 전 지역 확대에 앞서, 2023년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 및 운영하여, 라이즈(RISE)의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2023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하는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의 배경,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문부과학성은 Top-tier 대학지원을 위한 국제 탁월 연구 대학지원과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 패키지 지원을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역할부여를 통하여 지역산업발전과 청년의 대도시로 유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프로그램은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교차지원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구 제국대학들이 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탁월연구대학과 별도로 지역의 강점을 가지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려는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지역중심·특색 있는 연구대학 강화촉진사업”으로서 연구력 강화와 경영개혁을 동시에 뒷받침 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료계가 강한 중규모·중견대학에는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전체의 경영전략에 근거하여 신축성을 갖고 자원을 배분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이·공학부나 연구소 등 곳곳에서 비슷한 테마에 중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대학별로 강점을 가진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³¹⁾

또한,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지원은 대학당 한 건의 신청이 가능하나, 제안서를 제출한 다른 대학과 협업하여 비용 할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 협력의 주요 패턴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 연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국내외 대학, (2) 생명 과학 등 기초연구에 특화된 대학, 병원이 있는 대학, (3)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통의

31) “地域中核大学を研究×経営改革で支援、文科省が新たな一手”(Newswitch, 2022.8.24) 재구성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대학, (4)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지역대학과 수요 창출에 능한 도시 대학, (5) 변리사 등 산학연계의 전문 인재를 공유하는 대학. 이러한 협력 모델은 대학별로 강점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 및 보완이 가능하여 다양한 지역산업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³²⁾

반면,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대도시 집중화 및 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및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훌륭한 기획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역할이 대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그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 부분은 크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자체의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없이는 5년의 사업 후 사업을 수행한 대학의 강점 분야 연구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소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의 발전에는 지역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우수한 인재의 지역정주여건 개선 노력 없이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사업에서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배출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노력은 제시되지 않았다.³³⁾

또한,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지원금은 건당 최대 55억엔(인건비 25억엔, 연구장비 구입비 30억엔)이며, 5년간 연평균 11억엔을 지급한다. 최대 25개의 제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2023년 69개 대학이 신청했다. 경쟁은 치열하나 대학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의 규모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 지원금의 사용도 인건비와 연구장비 구입비로 대부분 사용된다면 우수한 학생의 유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는 비용이 부족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의 지자체 매칭 등으로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운명공동체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³⁴⁾ 우리나라에서 올해 시행하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32) “国公私立大の研究力強化を支援する文科省新制度、骨子が示した5つのイメージ”(Newswitch, 2023.4.17.) 재구성

33) “地域中核大学を研究×経営改革で支援、文科省が新たな一手”(Newswitch, 2022.8.24) 재구성

경우, 5년간 정부지원금 1,000억원에 더하여 광역지자체가 같은 금액인 1,000억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이 사활을 걸 정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정주여건의 확보와 충분한 재원의 지원이 대도시 집중화와 지역소멸, 지역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사업은 연구에 강점을 가진 분야를 활성화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각 도시, 현에서 대표적인 지역산업의 지원을 이 사업을 통해 대학에 부여하고 있다. 어느 도시에서나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야의 기업들을 집중지원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업종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강점있는 분야를 주로 지원하되,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업군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간 협력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이 가능해 보이거나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시행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각 특구별로 특화분야를 지정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산업으로의 전개를 촉진하고 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사업비의 50% 이상을 특화분야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학생을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마련 등의 지자체의 노력이 필수적인 반면, 연구논문 수 확보를 위해서는 패키지사업의 지원금 55억 중 연구장비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국가 R&D 투자가 증가되어 왔지만, 일본은 지난 20년간 R&D 투자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연구논문 수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도 구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학문발전이 리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외에서 학습한 훌륭한 연구자들이 동경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등으로 대표되는 구 제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 자

34) “地域中核・特色大学」25枠に69大学…申請大学の「予想外」”(Newswitch, 2023.8.13) 재구성

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대학에 자리잡은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구비가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비로써 본 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⁵⁾

35) 지역핵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 2022년 2월 1일, 2023년 2월 8일 개정, pp.2-4.) 재구성

참고 문헌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위한 노력: 일본 10조엔 대학펀드 창설”, 교육&웹진(2023.4)
- 김찬준, 김현우(2022),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6월호. 산업연구원.
- 김송년, 2020, 국토 위기 대진단: 위기를 기회로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2022.4.27.
- 오서연(2020), 2020년 지역R&D 실태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민선, 김승태, 2020,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대학 간접비 비율 산정과 연구성과에 관한 연구”, KOTIS, Vol.23, No.3
- 최강식, 이보경, 2017,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교양교육연구, Vol.11, No.1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2019,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20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2년 기본계획
- 교육부,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보도자료(2023.2.)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
-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개정자료)(2023.2.)
-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2018.11.)
-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023.9.)
- KIAT,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책제언: 미국, 일본,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2023.10.)

- KIAT, “일본 내각부 R&D 제도 개편 분석”, 애자일(2022.12.)
- KISTEP, 2019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20.2.)
- KISTEP, 2020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21.2.)
- KISTEP, 2021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22.2.)
- KISTEP, 성장동력 정책 체계 비교 연구(2021.2.)
- KISTEP, 2022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23.2.)
- 三菱総合研究所(2019).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経済産業政策・第四次産業革命関係調査事業費）（大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統合の在り方に係る調査研究.）」
- 未来ビジョン研究センター(2020). 「大学を核としたベンチャーエコシステムに着目した 産学連携政策」.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22). 「大学ファクトブック 2022」.
- 経済産業省(2020). 「我が国の産業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活動の動向: - 主要指標と調査データ」
- 経済産業省(2021a). 「事業会社と研究開発型ベンチャー企業の連携のための手引き (第三版)」.
- 経済産業省(2021b). 「我が国の産業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活動の動向: 主要指標と調査データ」.
- 経済産業省(2022). 「大学発ベンチャー実態等調査」
- 経済産業省 産業技術環境局(2021). 「経済産業省における産学連携支援施策について」.
- 経済産業省(2022). 「2022年度経済産業省における科学技術・産業振興施策」.
- 文部科学省(2022).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 令和2年度実績」.
- 三木俊克(2017). “大学の研究成果の社会実装促進のために”. 「産学連携学」. 13 (2): 1-5.

- 渡部俊也(2019). 「我が国のベンチャー創出・産学連携に係る現状の取組と今後の展望・課題」.
- 村上昭義(2018). “組織的な産学官連携を行う上での問題点とその背景要因：産学官の有識者による自己診断とそこから得られる示唆”. STI Horizon. 4(4): 38-43.
- 産学融合拠点創出事業事務局(2022). 「令和4年度産学融合拠点創出事業産学融合先導モデル拠点創出プログラム」.
- 大石知広(2022). “経済産業省産学官連携によるイノベーション創出に向けた環境の整備”.
- 第50回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2020).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形成に向けた支援パッケージ：コロナを乗り越えて新たな成長軌道へ”. (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_system/sien_package.pdf)
- 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推進事務局(2022).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について”. (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startup_gaiyou.pdf)
- 産業連携・地域振興部会(2021). “参考資料2 官民イノベーションプログラム・出資型新事業創出支援プログラム (SUCCESS) について”. 第3回 配付資料. (https://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31/siryu/000019199.htm)
- 株式会社価値総合研究所(2021). 「令和2年度産業技術調査事業(大学発ベンチャーの実態調査分析及びデータベースの構築) 報告書」.
- JST(2022). 「日本の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2022年)」.
- Deloitte(2020). 「産学連携における課題とそれに対するソリューション」.
- 日本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事例に学ぶ共同研究等成果の取扱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さくらツールの提供』, 共同研究報告書, 2019

- 三菱総合研究所(2019).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経済産業政策・第四次産業革命関係調査事業費）（大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統合の在り方に係る調査研究.）」
- 未来ビジョン研究センター(2020). 「大学を核としたベンチャーエコシステムに着目した 産学連携政策」.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22). 「大学ファクトブック 2022」.
- 経済産業省(2020). 「我が国の産業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活動の動向: - 主要指標と調査データ」
- 経済産業省(2021a). 「事業会社と研究開発型ベンチャー企業の連携のための手引き（第三版）」.
- 経済産業省(2021b). 「我が国の産業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活動の動向: 主要指標と調査データ」.
- 経済産業省(2022). 「大学発ベンチャー実態等調査」
- Newswitch, “地域中核大学を研究×経営改革で支援、文科省が新たな一手”(2022.8.)
- Newswitch, “国公立大の研究力強化を支援する文科省新制度、骨子が示した5つのイメージ”(2023.4.)
- Newswitch, “地域中核・特色大学」25枠に69大学…申請大学の「予想外」”(2023.8.)